



제주도편

대
영
농
장

1. 농장연혁과 규모

대영농장은 1970년도에 4만평의 감귤농원으로 시작하여 이 감귤농원의 퇴구비 조달목적으로 1972년도에 20두의 모돈을 이시돌양돈장으로부터 분양받아 양돈에 손을댔고 1975년도에 돼지사육두수가 500두로 늘어나자 육지와 달리 사료확보문제가 발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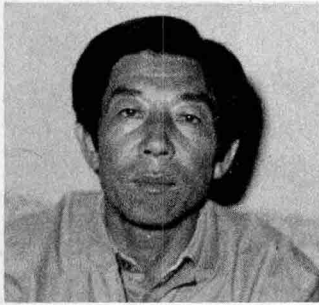


—이순천농장대표—

여 전분공장을 인수하여 전분박을 생산하고 제주도산 밀치와 고등어를 수집하여

어분을 생산하며 심지어 부산소재 도축장 부산물인 골분박을 발효시켜 공급하는 등 자급사료개발에 치중하여 3년간 자급사료를 급여시킨 바도 있다.

그러나 돼지사육두수가 500두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급사료만으로는 도저히 사육할 수가 없어 1975년도와 1976년도에 사료공장을 설립하기도 했는데



이창진농장장

현재 제동목장이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다.

현재 대영농장은 300여 두규모의 모돈을 사육하고 있고 약 5000여평의 돈사 부지에 총시설면적 970평 규모로 분만돈사 6개동(50평규모)과 비육돈사 13개동(40평규모)을 보유하고 있고 총 12명의 기술인력이 투입되어 가축을 돌보고 있다. 또 4만여평의 감귤농장엔 13,000여 그루의 감귤나무가 재배되어 있다.

2. 양돈현황

가. 번식돈사

200두의 번식돈을 수용할 수 있는 60여평의 돈사 규모지만 현재 17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돈사 가운데에서 양쪽으로 사료를 급여토록되어 있고 돈분 제거는 돈사 양 옆으로 떨어져 물로 청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임신확인 20일 이후에 번

식모돈을 이 스톨번식돈사에 사육하여 개체관리를 쉽게하고 있고 분만 7~10일전에 분만사로 이동시키는데 개체카드에 의해 사료조정과 모돈개체 관리를 하고 있다.

돈사 지붕아래에 설치된 대형 비닐통형 선풍기는 여름철 돼지 자체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스톨돈사(묶어거르는 돈사)는 운동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리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으나 점차 다리가 약한 랜드레이스 품종에서 다리가 강한 라지화이트(대요크셔), 햄프셔, 교잡종등의 품종으로 보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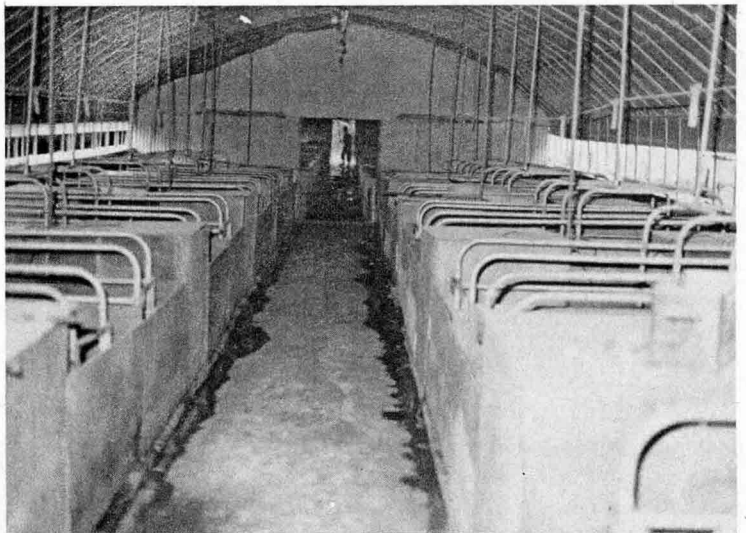
나. 분만실

분만 7-10일전에 번식돈사에서 옮겨와 여기에서 새끼돼지를 낳고 새끼돼지가 3~5일령이 되면 다른중간 분만돈사로 옮기는데 돈방 폭이 좁아 자돈이 10일령 정도밖에 이 돈사에서 머물러 있지 못한다.

다. 중간 분만실

1.2평당 1두의 분만돈을 수용하는 다두수용시설인데 새끼돼지가 20일령이 되면 약간 비좁은 것이 단점이나 단위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서 20일령까지 키워 운동장시설이 있는 돈사로 이동시킨다.

46두를 수용할 수 있는



분만돈사내부전경



이유자돈돈방

시설이지만 한쪽은 이유시켜 비어 있고 현재 32두의 중간 분만돈을 사육하고 있다.

35~40일령때, 자돈평균 체중이 9~11.5kg일때 이유시키고, 1복당 산자수(한배새끼돼지수)는 평균 10.75두인데 이유두수가

8.35두로 육성율은 77.67% 정도가 된다.

라. 웅돈사 및 임신대기사

돈사 한쪽에 웅돈을 사육하고 다른 한쪽에 새끼 돼지 젖을 땀 어미돼지와 후보돈을 수용하여 서로 냄새를 맡고 접촉하는 과정에

서 발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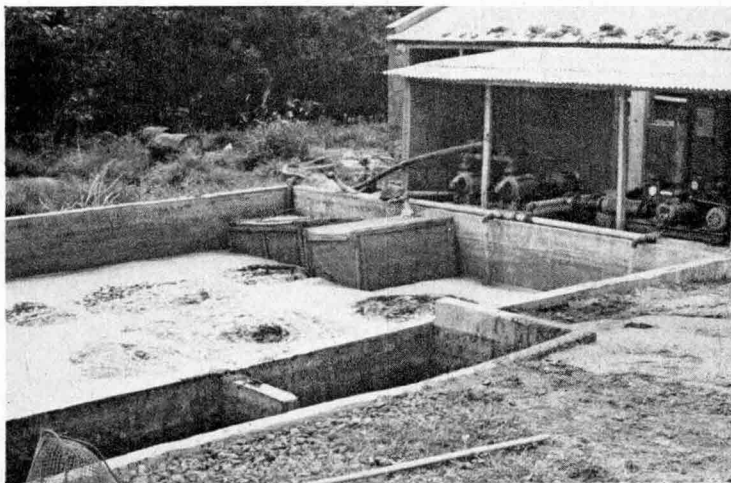
번식체계는 주로 잡종교배로 나온 F₁을 번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요 품종으로는 랜드레이스, 햄프셔, 듀록저지, 라지화이트이며, 주요번식체계로는 랜드레이스×햄프셔, 랜드레이스×라지화이트, (랜드레이스×라지화이트)×햄프셔 등의 잡종교배와 3원교잡방법을 응용하고 있고 (랜드레이스×라지화이트)×라지화이트 교잡방식도 때때로 사용하며 라지화이트×햄프셔 교잡방식에서 나온 F₁을 삼원교잡용번식모돈으로 쓰기도 한다.

그러나 듀록은 비육용 삼원교잡돈 생산에만 쓰이고 번식용 교잡돈 생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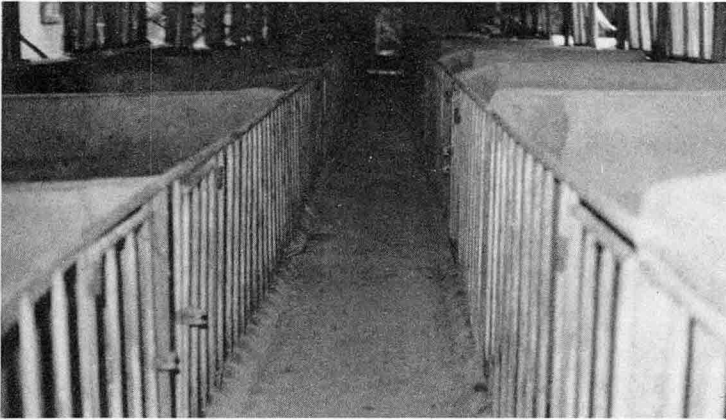
마. 후보돈사

돈사 양쪽에 스톨이 설치되어 있어 운동장이 있는 쪽에 후보돈을 수용하고 다른 한쪽에는 허약돈 또는 힘이 달리는 돼지를 넣어 별도 사양관리를 하고 있는데 번식개시일령은 보통 8개월 이상으로 보지만 암컷의 경우 체중이 100~

125kg, 숫컷의 경우 체중이 120kg 이상이 되어야 번



오수처리장시설 (2,000두 처리능력)



비육돈사전경



번식스틀돈사 내부전경



번식돈사 외부전경

식에 활용하고 있다.

바. 이유자돈사

35일령에 이유시킨 새끼 돼지를 이유자돈사에 옮겨와 1개월간 사육하고 75일령이 되면 다시 육성돈사로 이동시키는데, 이유자돈사는 7평짜리 운동장이 달린 4평짜리 1개 돈방에 15두의 이유자돈을 수용하며 사료급여는 무제한자동 급여방법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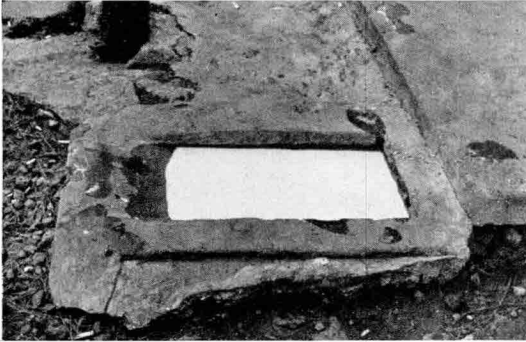
사. 육성돈사(비육돈 전기)

75일령에 이유돈사에서 옮겨와 비육돈 전기 돈사에서 95~100일령까지 사육하는데 체중은 대체로 여름철엔 60kg으로 제한하여 육성과 비육을 단축시키고 있고 겨울철엔 유지에너지의 소비가 많아 75kg까지 사육시킨다.

55kg~60kg정도에서 비육돈전기돈사로 들어온 육성돈들을 성장율이 최고에 도달할 시기이므로 무제한 급이와 충분한 영양관리를 하는 한편 육질위주로 사료 조정을 하고 있다.

아. 비육돈후기돈사

75kg이후엔 사료조정으로 들어가는데 비육돈전기에서 1일 3회 급여하던 것을 후기엔 1일 2회 급



농장입구에 설치된 소독조

여하고 급여량은 한번 급여 해서 사료가 급여통에 남지 않을 만큼 준다.

품종, 온도등의 요인이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데 계절적으로 온도가 변화됨에 따라 육질이 변한다. 여름철엔 근육조직에 수분이 많고 체중이 떨어지는 PSE 현상을 보이며 겨울철엔 근육조직이 견고하고 체중이 많이 나가며 육색이 붉어지는 DFD근육 현상을 보인다.

지리적으로 육지부는 돈사시설이 높고 넓어 여름철에도 돼지의 육질이 좋지만 제주도는 돈사가 낮고 따라서 비좁기때문에 체장이 짧아지고 육질이 나빠진다.

자. 정화조(폐수처리장)

2,000두정도의 돼지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조는 20만M/T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며 시설비는 약 2,000만원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이전은 메탄가스가 발생못하도록 산소처리를 하여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을 낮춰주는 동시에 악취를 제거하고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지 않도록 물로 희석시켜 과수원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돈분은 퇴비장에 별도로 적재하여 퇴비로 활용한다.

3. 질병관리와 자급사료개발의지

가. 질병관리

대영농장은 돼지콜레라, 위축성비염, 전염성위장염, 돼지유행성폐염, 일본뇌염, 파보바이러스, 대장균증, 기타 영양성 및 대사성질병등에 관한 방역프로그램을 세워 집중적으로 질병퇴치에 정성을 쏟고 있다.

돼지콜레라는 제일위험

한 전염병으로서 포유전 예방접종방법을 응용하고 있는데 대장균증이 합병될땐 별 효과가 없어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은 30일령에 1차접종, 60일령에 2차접종을 하고, 모돈은 6개월에 1회 예방접종을 하는데 돼지혈청 항체가조사결과 항체가가 147로 나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계획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축성비염은 우리나라 전체돼지의 73%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영농장에서도 약 70%정도는 감염된 것으로 농장관계자는 보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임신 60일에 1차접종하고 분만 2주전에 2차접종을 하지만 자돈에 대해서는 예방약 확보 문제등으로 접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장균증과 함께 치료하고

있다.

전염성위장염은 3년을 주기로 감염되는데 작년도가 3년째이어서 이미 제 1차, 2차 접종을 전군의 돼지에 대해 실시했다.

돼지유행성폐염 예방접종은 이유시부터 3개월령(40kg)까지 시판되는 약품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3~4월 중순경에 후보돈과 초산돈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일본뇌염이 전군에서 같은 일령에 사산을 일으켜 미이라변성태아를 초래하는 반면에 파보바이러스는 감염된 개체에 대해서만 사산을 일으키는데, 불규칙한 일령에서 사산이 나타나고 산자수가 적어지며 예방접종은 종부전이나 분만전 그리고 이유시키기 전에 6개월마다 실시한다.

영양성질병에 대해선 10~20일령의 약한 새끼돼지에 칼슘을 3cc 가량 1-2회 주입해주며 분만 후 회복과정에서 영양제를 주입하고 20일령의 새끼돼지에게 젖을 많이 뺏겨 다리

가 허약해진 모돈에 대해 칼슘을 보충해 준다, 그리고 4일령의 새끼돼지에 대하여 200mm의 철분주사를 놓고 2주후 재 주입시키며 설사후 빈혈이 나타날 것에 대비 철분과 칼슘을 보충해 준다.

나. 자급사료개발의지

돼지파동에 대비하여 비싼 배합사료 의존을 탈피하고 자급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사료원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kg당 50원하는 고구마를 175,000kg(1천만원 상당) 확보하여 경제성보다는 사료값 인상 전망에 대비하고 있다.

고구마 20kg 가격이 생돈 1kg 가격보다 비싸지 않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밖에도 자급사료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108,000원하는 생산원가를 낮출 계획이다.

4. 출하방법

농장위치가 제2횡단도로와 일주도로변에 위치하여 출하에 유리하며 출하방법으로서는 중간상인이 직

접 자가이용차를 가지고 와서 직접 실어가며 마진 폭이 적어 상호 유리하게 거래하고 있다.

또한 수요기를 맞으면서 관혼상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5. 이순천(농장대표) 씨의 약력

제주도 태생인 이순천회장은 13세때 도일하여 현재 동경에서 플라스틱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수성가한 의지의 한국인이다. 일본에서 기반이 잡히자 이순천씨는 '68년도부터 고향나들이에 나서 고향에 소재한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 헌금을하여 체육관시설을 갖추게 하였으며 고향부락에 전기 전화 시설과 도로포장까지 해 주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

가족상황을 보면 슬하에 8남매를 두고 있으며 큰손자(이인형씨)는 일본체육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 수영코치로 활약하고 있으며 둘째 손자는 서울대 무역학과에 재학중이다.